

文學 속의 고래

- 고래사냥에서 고래사랑으로 전환하고 있는 고래
文學의 이슈를 중심으로 -

Whales in the Literature

- Focussing on the Issues of the Whale Literature Changing
from the Whale Hunting to Whale Love -

김옥주(소설가 / 포항이동고등학교 교사)

Ohkju Kim (Novelist / Schoolteacher in the Pohangidong Highschool)

요약

문학은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고래문화가 문학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그 시대의 고래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고래사냥 일변도에서 고래사랑으로 변화해 가는 길은 이미 문학에서 보여주고 있다.

울산은 귀신고래가 회유하는 장생포 앞바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곳이다. 이는 귀신고래가 살았던 곳이면서 앞으로도 귀신고래가 찾아올 수 있는 희망이 남아 있는 곳임을 뜻한다. 이것은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문헌 자료를 통해서도 고래와 고래문화가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래 메카의 나라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수족관에 갇힌 고래를 보거나 고래사랑보다는 고래사냥이나 고래 해체가 문학의 중심 내용이 된다는 것은 고래문화의 미래를 위하여 우려된다. 세계의 고래 이슈 관련 문학에서나 우리나라 고래문학에서 고래사랑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급동서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고래를 통해 그리고 문학 속의 고래 묘사에 나타난 고래에 대한 인지의 편차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고래문학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울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래사랑 문학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iterature is a scale which shows social culture. The Change of the whale culture in the literature means the change of social recognition about the whale culture. The changing trend of

the literature from the Whale Hunting into Whale Love appears in the modern literature.

Ulsan is the only place in South Korea where the sea of Jangsaengpo in the city is registered as a national natural monument. It means the Ulsan is the place where grey whales lived there and can return again there. The national natural monument of Jangsaengpo sea is resulted from Korean traditional whale culture, where is considered as the best whale culture, including Bangudae whale petroglyphs located in Ulsan area and many documentary records about whale in Korean history

However, people have wondered about the some literature works of hunting whale in the Korean literatur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whale culture. There remain problems such as whale aquariums and some customs of killing and eating whale in South Korea including Ulsan City where should be the mecca of whale for the world.

We should pay attention the new trend of the Whale Love both in the literature of South Korea and in the World as well. Hence, this thesis will pursue the way how the whale culture in the literature and the direction of the whale love literature of Ulsan should be for the future through reviewing the descriptions and differences about the whales in the literature history of the world

<Keywords> Whale Road. Whale in the Literature, Whale in the Classic. Whale Hunting, Whale Love,

서론

문학의 소재는 사회문화는 물론 삼라만상이 모두 가능하다. 그 중에서 동물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인간의 생업을 직접 돕거나 반려동물로 인간과 함께 살으로써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학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래에 주목을 하여, 동서고금의 문학에서 고래가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하려 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내려오는 고래 관련 언어와 격언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거나와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 속의 고래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것은 보다 깊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고래사냥을 중심으로 하던 문학이 고래사랑으로 시선을 돌리는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문학 속에서 고래가 인식되는 범주와 그 변화를 가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론

1. 생활에 녹아든 고래 관련 언어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지구상에 인간이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언제부터 생겨나서 사용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민족의 삶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래와 관련되어 예부터 전해 내려오거나 최근에 생겼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래에 관한 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한국어에 나타난 고래 관련 말들

- 고래 등 같은 기와집: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래 크기나 모습의 직접 확인 여부에 관계없으며, 집이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을 지라도 통용되었던 말.
 - 고래고함: 목소리를 크게 내어 부르짖거나 외치는 고함을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
 - 술고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일컬었음.
 - 고래 힘줄: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성질이나 현상이 기대 이상으로 지속될 때 사용.
- 그 외에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말 다 하자면 고래 등 같은 기와집도 하루아침에 넘어간다, 도랑 막고 고래 잡을까, 새우 잡으려

다 고래 농친다' 등의 속담이 전해진다.

1.2 세계의 고래 관련 말들

- Whale of Whales: 고래 중의 고래(서양에서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의 근원)
- Eats more than a whale.: 고래보다 더 많이 먹는다. (아라비아 격언)
- To throw out a tub to the whale.: 물통으로 고래에게 물 붓기 (영국 속담)
- Throw out a herring to catch a whale.: 고래에게 청어 던지기 (영국 속담)
- A whale's tooth in a whale's jaw.: 고래 이빨 하나라도 고래 턱이 있어야 얻는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속담)
- Every little fish expects to become a whale.: 모든 작은 물고기들도 고래되기를 원한다. (덴마크 속담)
- There's no eel so small but it hopes to become a whale.: 작은 장어도 고래 되기를 바란다.(독일 속담)
- No matter how big the whale is, a tiny harpoon can kill him.: 아무리 고래가 커도 작은 작살로 죽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속담)
- Ships are expendable; the whales are not.: 배는 크게 늘일 수 있어도 고래는 늘일 수 없다. (Paul Watson)
- Whale Done! : Well Done에 대한 패러디 언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미국, 캔블렌차드의 책, Whale Done)³⁾

1.3 고래 관련 말들의 의미

인간이 언어생활을 함에 있어 생활어와 문학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살펴보는 것은 문학 속의 고래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작업이 될 것이다. 고래와 관련된 말들은 대부분 거대한 존재로서 고래를 인지하고 있다. 고래의 크기는 구체적인 영역을 벗어나 추상적인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국 고전 문학에 나타난 고래

3) 캔 블렌차드 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21세기북스, 2002

1.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에 고래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남아 있다. 고래와 깊이 관련된 한국의 문화는 문학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장생포 앞바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귀신고래가 나타난 것의 의미를 크게 부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방문한 미국의 고고학자 앤드류스는 울산만을 '물 반 고래 반'으로 묘사했고, 1970년대까지 한반도 동해안에서 귀신고래를 볼 수 있기까지 조선시대에도 쉽게 거대한 고래를 우리나라 바다에서 볼 수 있었다. 목은 이색이 찾았던 곳으로 이름난 영덕 영해상대산의 관어대⁴⁾는 그 위치로 보아 고래를 보기에 적절한 곳이다. 동해안의 여러 곳의 관어대나 이와 비슷한 이름의 누각은 고래를 보는 곳들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고래를 쉽게 볼 수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고래가 생활과 깊이 관련을 지었을 것이며, 삶을 반영하는 고전 문학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고전문학 속의 고래를 살펴보자.

2.1 심청전

“집치레 보자 하면 능란하고 장하구나. 고래 뼈를 걸어서 대들보를 삼으니(卦鯨骨爲樑) 신령스런 빛깔이 햇빛에 빛나고, 물고기 비늘을 모아서 기와를 삼으니(集魚鱗以作瓦)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어린다.”⁵⁾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져 수정궁인 용궁으로 들어갔을 때 고래 뼈를 걸어서 대들보를 삼은 용궁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다. 심청전의 이러한 '고래뼈 대들보'는 알래스카 코리안 온돌집 등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지붕도 고래뼈 대들보와 서까래를 한 같은 구조의 집이었다는 것은 심청전의 용궁이 문학적인 픽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전통 고래뼈 대들보 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⁶⁾ 심청전에서 심청

4) 이색이 고래를 읊은 관어대. 경북 영덕군 영해면 피시리 소재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심청전, 1995.

6) 3천 년 전 코리안 고래 뼈 탈이 발굴된 아막낙 섬의 온돌집도 대들보, 서까래, 지붕이 고래 뼈로 되어 있었다고 발굴자들은 보고했다.

이 인당수에 빠져 용궁에서 환생한 이야기는 결국 고래 뱃속에서 환생한다는 의미로 고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2 퇴별가

“새로 지은 영덕전이 용왕의 대궐인데, ‘용의 뼈를 걸어 대들보를 삼는다(掛龍骨以爲梁)’는 ‘용골(龍骨)’ 두 자 망발이오.”

용왕이 크게 놀라,

“그 말이 과연 옳소. 그 두 자 고치시오.”

“용(龍)자를 파내고, 고래 경(鯨)자 좋을 터이나 내 길이 바쁘오니 다녀와서 하옵시다.”⁷⁾

우리나라 고유의 고래토템 문화가 중국의 용토템문화로 윤색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용으로 표현된 우리나라 고전들은 고래에서 변화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심청전에 이어 퇴별가에서도 고래뼈로 대들보를 했다는 것은 토끼가 들어간 곳도 고래 뱃속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고래 뱃속에서 다시 잉태하여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온 이야기나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탕으로 서양의 돔이 고래 이미지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며,⁸⁾ 서양인들에게도 동양의 고래뼈 아치처럼 거대한 고래뼈는 승배의 대상이기도 했다.⁹⁾

알라스카에는 아직도 『심청전』과 같은 고래 뼈 대들보, 고래 뼈 서까래, 고래 뼈 기둥으로 만든 고래 등 같은 집 골조가 남아 있다. 김성규, 북태평양 해안선 고래길과 고래뼈 탈 문화, 한국고래문화학회, 2013.

- 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퇴별가, 1993.
- 8) “성당이나 큰 정부 청사, 또는 박물관에 가게 된다면, 그 건물을 잘 올려다보세요. 높은 아치나 둥근 지붕, 둥근 천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요나와 제임스 바틀리, 불리 스프레이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죠. 그들이 고래 뱃속에서 둥근 천장을 올려다보며 품었을 놀라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도록 말이에요.” 찰스 시버트, 고래의 비밀, 봄나무, 2011.
- 9) “사람들은 높고 둥글게 휘어진 갈비뼈와 등뼈, 턱뼈를 예배당으로 가지고 가서 그 옆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유럽의 교회라면 어디든 고래 뼈가 걸려 있었어요. 고래 뼈가 통째로 예배당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찰스 시버트,

2.3 해랑행(海狼行)

솔피(범고래)는 늑대 몸통에 수달의 가죽으로 간 곳마다 열 마리 백 마리 떼 지어 다니는데 물 속 동작 날쌔기가 나는 듯 빠르기에 갑자기 덮쳐오면 물고기들은 전혀 모른다네 큰 고래란 한 입에다 천 석 물고기를 삼키니 큰 고래 한 번 지나가면 물고기가 씨가 말라 물고기 차지 못한 솔피는 고래를 원망하여 고래를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짜낸다. 한 무리는 고래 머리 들이받고 한 무리는 고래 뒤를 에워싸고 한 무리는 고래 왼쪽을 말고 한 무리는 고래 바른편 말고 한 무리는 물에 잠겨 고래 배를 올려치고 한 무리는 뛰어올라 고래 등에 올라타서 상하 사방 일제히 고향을 지르고는 살갓 찢고 속살 씹고 어찌나 잔인하던지 우레 같은 소리치며 입으로는 물을 뿜어 바다가 들끓고 청천에 무지개다.¹⁰⁾

해랑행은 조선의 선비의 눈에 비친 고래 싸움을 그린 작품으로, 이빨고래인 범고래떼가 수염고래를 공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한시이다. 어부가 아닌 선비의 관찰 결과임을 볼 때 고래의 생태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 표해록(漂海錄)

“(고래가) 물 위에 나타난 것은 기다란 행랑(行廊)집과 같고, 큰 것은 배를 삼키고 작은 것도 배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서로 만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

위의 책.

- 10) 海狼狼身而獺皮 / 行處十百群相隨 / 水中打圍捷如飛 / 欸忽揜襲漁不知 / 鯨一吸魚千石 / 長鯨一過魚無跡 / 狼不逢魚恨長鯨 / 擬殺長鯨發謀策 / 一群衝鯨首 / 一群繞鯨後 / 一群伺鯨左 / 一群犯鯨右 / 一群沈水仰鯨腹 / 一群騰躍令鯨負 / 上下四方齊發號 / 抓膚肌齧何殘暴 / 鯨吼如雷口噴水 / 海波鼎沸晴虹起.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4권. 다산 정약용은 범고래를 해랑, 즉 바다늑대로 표현하고 있다.

다.”¹¹⁾

표해록은 1488년 최부가 제주도에서 나주로 돌아가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한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고래가 무서운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다. 고래를 기다란 행랑에 비유하며 고래의 크기에 압도당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내며,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서 고래를 인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래에 대한 단편적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 고전문학 작품이 상당수 있다.¹²⁾

3. 현대 문학 속에 나타난 고래¹³⁾

인간과 동물의 인연은 워낙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고래뿐 아니라 많은 동물이 문학의 소재가 되었다. 수렵의 대상이었던 동물이 가축으로 바뀌고, 또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는 동안 수많은 동물들이 문학에 자주 등장했다. 그 중에서 가축의 범주에서 소, 돼지, 말을, 반려동물로서 개, 고양이, 토끼를 중심으로 문학에 등장하는 빈도를 조사했다. 이 동물들은 모두 포유류로서 비교적 인간의 삶과 밀접한 동물이라 여겨져 임의로 선정했으며, 이들과 고래를 비교해 보았다¹⁴⁾.

구분	검색어	서점	도서관
고래	고래	50	1,642
	문학	19/6	21/139
소	소	50	390,408
	문학	7/13	3/12,533
말	말	50	44,918
	문학	0/19	2/1,704
돼지	돼지	50	3,839
	문학	17/2	21/88
개	개	50	327,123
	문학	5/19	1/3,152
고양이	고양이	50	3,372
	문학	10/8	6/14
토끼	토끼	50	3,263
	문학	12/4	17/230

<표 10> 문학 작품 소재로 등장한 동물 빈도

<표1>을 통해 볼 때 그 어떤 동물보다 고래의 문학 소재 등장 출현이 많다. 이것은 현대인의 고래에 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대 문학에서도 고래는 거대한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다. 고래의 생태적 특징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워낙 컸다는 뜻이 되겠다. 지구상에 나타난 동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몸집을 가진 고래이기에 인류에게 숭배 대상으로서 종교적인 현상으로 승화된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골이 장대한 왕을 표현한 사례들은 지구상에서 기골이 가장 장대한 고래의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베트남의 고래 사당들¹⁵⁾이나 고래신을 모시는 일본의 신사들¹⁶⁾은 고래 숭배가 종교가 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 11) 최부, 표해록, 무신년(1488, 성종 19) 윤1월 6일 기록.
- 12) 큰 고래는 뽀는 물이 눈을 이루고, 배를 삼켰다 뽀어냈다 한다. 이색, 관어대부(觀魚臺賦). 큰 고래가 떼를 지어 희롱하면 하늘이 흔들린다. 서거정 등, 동문선(東文選) 제21권. 바다 가운데에는 물결을 뒤엎으며 갈기를 떨치는 고래가 있다. 오윤겸, 동사상일록(東槎上日錄).
- 13) 현대 문학은 워낙 작품 수가 많아서 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14) <표1>에서 ‘서점’은 인터넷 교보문고,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이며, 2017년 9월 16일자로 검색한 결과이다. ‘구분’의 동물 이름은 문학에 많이 등장하리라는 추측 하에 검색한 결과이며, ‘검색어’의 경우, 동물 이름으로 1차 검색한 결과를 두고 ‘결과 내 검색’으로 다시 ‘문학’을 입력했을 경우 나타나는 숫자이다. 이때 연작물이거나 같은 제목의 다른 출판사 작품은 한 권으로 간주했다. ‘고래’를 예를 들면 ‘50’은 20권씩 나타나는 도서가 50페이지임을 나타내고, ‘19/6’은 고래에 관한

문학도서가 6페이지에 걸쳐 재검색되며, 재검색된 페이지 중 1페이지에 고래 문학도서가 19권 검색된다는 뜻이다. ‘1,642’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고래’로 검색되는 단행본 숫자이며, ‘21/139’은 139권의 재검색된 도서 중 1페이지(30권)에 21권의 고래 문학도서가 검색되고 있다. ‘문학’으로 재검색했을 때는 모두 문학도서가 아니고, 검색하는 동물과 같은 이름의 출판사나 동음이의어가 검색되기도 하기 때문에 1페이지에 관련 동물이 소재로 등장하는 도서만을 나타내었다.

- 15) 베트남 봉타우 응남하이 고래사당, 다낭 남오마을 고래사당 등
- 16) 일본 큐슈 나가사키현 해동신사 등

3.1 문학 속에 나타나는 고래 이동

문학 속에서 고래는 단지 개체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라 그 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하얀 고래 미갈루(Migaloo, the white whale/ 마크 윌슨, 도토리숲, 2016)』는 하얀 고래 미갈루가 다른 흑등고래와 함께 남태평양에서 남극대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자연 및 신비로움과 함께 담은 작품이다. 『전설의 고래 시쿠(Ice whale/ 진 크레이그헤드 조지, 별숲, 2015)』는 북극으로 이동하는 참고래 시쿠와 이누이트 소년 투자크의 만남이 200년 동안 투자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고래와 인간의 오랜 인연을 다룬 작품이다.

3.2 문학에 나타난 상징으로서의 고래

문학에서 고래가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고래 자체의 거대한 몸집으로 인한 구체적인 양의 크기로 나타나는 경우와 정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들이 공감하는 크기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고래도 함께(Not forgetting the whale/ 존 아이언빙거, 현대문학, 2016)』는 지구 모든 곳에 에너지와 식량의 고갈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표착경을 이용하여 기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515쪽 중 고래 이야기는 10쪽 정도를 할애했을 뿐이다. 『고래여인의 속삭임(Susurro de la mujer ballena/ 일론소 꾸에또, 들녘, 2008)』은 등장인물의 몸집이 크기 때문에 고래여인이고, 『고래 싸움(우경인, 파랑새미디어, 2012)』은 거대한 세력들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며, 『고래(천명관, 문학동네, 2014)』는 독자들에게 왜 고래라는 제목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고래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는 작품이다.

고래와 관련된 제목을 지닌 문학 작품 중에는 고래를 상징화한 『고래 싸움』과 같은 작품이나 고래가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데 고래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붉은 고래(이대환, 현암사, 2004), 나는 고래 곁에 사는 고래라고 합니다(わたしはクジラ岬

にすむクジラといひます/ 이와사 메구미, 푸른길, 2004), 주머니 속의 고래(이금미, 푸른책들, 2006), 고래남친(クジラの彼/ 아리카와 히로, 북홀릭, 2011), 생중계 고래싸움(정연철, 비룡소, 2013), 고래가 뛰는 이유(최나미, 창비, 2014), 나무 위의 고래(김경주, 허밍버드, 2015)』 등의 작품이 이에 속한다.

문학에서 고래를 전면에 내세우는 의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지만, 고래가 제목에 들어감으로 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푸른동해 바다 고래는 없었다(이종철, 한국문학도서관, 2003)』는 시집으로 56편의 시를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 놓은 작품집이다. 시집의 제목이 된 이 한 편의 시 외에는 고래와 관련된 시가 더 이상 없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시집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고래와 수증기(김경주, 문학과지성사, 2013)』는 직접적으로 고래와 관련된 시가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들 시집뿐 아니라 『철갑 고래 뱃속에서(정남식, 문학과지성사, 2005), 고래 2015(강은교 외, 책만드는집, 2015), 고래는 왜 강에서 죽었을까(제리안, 푸른사상, 2016)』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고래라는 낱말이 독자에게 상당한 흡인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래의 눈(Lizzie bright and the buckminster boy/ 게리 슈미트, 책과콩나무, 2010)』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의 원제목은 『리지 브라이트와 벅민스터 소년(2004)』으로 미국에서 뉴베리상과 마이클 프란츠상이라는 문학상을 수상했다. 6년 후에 이 작품을 한국에서 출판하면서 책 제목이 주인공 혹은 소녀 리지와 백인 소년 벅민스터의 이름이 아닌 『고래의 눈』으로 바뀌었다. 이 작품에서 고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344페이지 중 고래에 관한 내용은 채 1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문학에서 책 제목에 ‘고래’를 넣고자 하는 의도가 얼마나 강렬한지 『고래의 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고래는 지구상에 나타난 동물 중 가장 거대한 몸집을 지니고 있다. 이 거대함이 문학에서 상징성으로 나타난 작품이 많은데, 등장인물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몸집이 클 때도 고래에 비유되고, 희망이나 어떤 현상을 나타낼 때도 대규모를 상징하고 있다. 거대함을 숭배하는 것

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만은 아님을 문학이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3.3 고래 사냥 문학

고래사냥을 주제로 고래를 다룬 문학들은 이미 과거의 문학으로 밀려났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작품에도 나타나고 있다. 고래사랑이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고래를 소재로 한 문학 중에는 상당수가 고래사냥을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고래사냥 주제의 대표적인 작품이 『모비딕(Moby Dick/ 허만 멜빌, 작가정신, 1851)』이다. 이 작품은 팽창주의시대의 거대국가들이 해양 전쟁을 하던 시기에 나온 작품으로 고래 사냥을 산업으로 하던 시대를 그리고 있다. 1986년 국제고래사냥금지조약이 선포되고 30년이 흐른 지금에는 마치 적의 함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향고래를 공격하는 『모비딕』의 과대 고래사냥증은 더 이상 고래주제 문학의 백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고래사냥 금지조약이 발효된 지 반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문학은 아직도 고래를 사냥하고 고래 고기를 먹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꽃피는 고래(김형경, 창비, 2008)』는 포경선 스토리이지만, 포경선을 찬양하거나 고래를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석기 마을의 고래사냥(정종숙, 한솔수북, 2006)』은 제목에서부터 고래사냥을 내세우고 있다. 『고래소년 울치(하용준, 글누림, 2013), 반구대(구광렬, 작가, 2014), 사라진 고래들의 비밀(곽옥미, 사계절, 2015), 신석기 고래왕 해숨숨(권타오, 파란자전거, 2016),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고래 이야기(강미희, 마루벌, 2016)』 등은 고래 사냥이라는 구시대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바위그림 해석을 사냥에 초점을 두고, 사냥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과장된 면이 있어 보인다.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새겨진 고래 이야기』는 도서관에서 역사로 분류해 놓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이야기 식으로 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문학의 범주에 넣었다.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반구대』를 제외한 이들 작품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어떤 작품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 게 고래와 공존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연과 갈등하고 대치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고래를 사냥하는 나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¹⁷⁾, 품격 있는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세를 지니게 해야 하는 성인들이 고래 사냥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고래의 맛(박영희, 북인, 2016)』은 어쩌면 어떤 맛인지도 모를 사람들에게까지 고래고기의 맛을 홍보하면서, 이미 고래를 고기로 맛본 사람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래를 다룬 문학의 경향이 고래사랑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3.4 고래 사랑 문학

고래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사랑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은 현대 세계 문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고래사냥금지조약을 실천하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문학에서도 고래사냥 주제를 그린 수많은 작품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사랑 문학으로 지향해 가고 있는 작품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고래를 잡기 위해서 고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바라보고 고래가 넓은 바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삶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울산에서 고래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고래와 마주치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고래바다여행선을 띄우는 것도 고래사냥이 아니라 고래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마테이라 섬의 고래(Sanften Riesen der Meere / 니나 라우프리히, 온누리, 2007)』는 고래를 잡던 포르투갈 마테이라 섬 사람들이

17) “아직도 고래들이 처참하게 포획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고래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 쓸 것을 권유합니다.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부모님, 친척들, 같은 반 친구들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한국의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니나 라우프리히, 마테이라 섬의 고래, 온누리, 2007, 저자 후기.

어떻게 고래 사냥을 포기하고 고래 관광으로 돌아섰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설의 고래 시쿠』는 고래 이동로를 따라 인간과 고래의 우정을 그린 소설로 생태 부분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결국은 고래 사랑으로 이어지는 작품이라 다시 주목을 했고, 『고래포 아이들(박남희, 아이앤북, 2015)』은 일제강점기 때 고래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어른들을 그리면서도 아이들의 고래 사랑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어 고래사냥을 강조하는 작품들보다 더욱 눈에 띈다. 줄지 『반구대 고래길(김옥주, 북코리아, 2015)』은 반구대 암각화와 절절한 고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를 고래 사냥에 초점을 맞춘 많은 다른 작품들과 비교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래들의 노래(Whales'song/ 다니안 셀든, 비룡소, 1996), 바다로 간 고래바위(이순원, 굿북, 2008), 귀신고래(김일광, 내인생의 책, 2008), 꼭두는 왜 고래 입속으로 들어갔을까(김옥랑, 들녘, 2013), 고래가 보고 싶거든(If you want to see a whale/ 줄리 폴리아노, 문학동네, 2014), 고래굴의 비밀(박재형, 국민서관, 2015)』 등의 작품이 고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다. 향후 고래사랑을 주제로 더 많은 문학작품들이 나오리라 예상된다.

4. 울산 소재 고래 문학

4.1 울산이 고래문학의 주요 산지가 된 배경

울산에는 국보 제285호 대곡리고래암각화가 있고, 천연기념물 제126호 귀신고래회유해면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고래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다. 매년 5월경에는 고래축제가, 10월경에는 처용문화제가 개최되는 곳도 울산이다. 고래 축제는 고래를 중심으로 하니 당연한 일이지만, 처용무 또한 고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고래춤이기¹⁸⁾ 울산은 선사시대부터 명실상부한 고래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장소를 고래 문학의 배경지로 내세울 때 울산을 능가하는 장소는 없을 것이

다.

『아기 고래 뚜치의 눈물방울(구광렬, 새움, 2016)』이나 『반구대 암각화 바위에 새긴 고래 이야기』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울산 배경의 작품이고, 『사라진 고래들의 비밀, 고래야 고래야 귀신고래야(한봉지, 파란하늘, 2006), 고래 소년 울치, 꼭두는 왜 고래 입속으로 들어갔을까, 하늘이와 귀신고래왕자의 모험(이문경, 인사이트브리즈, 2014), 신석기 고래왕 해숨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울산 배경 작품이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는 『반구대, 반구대 고래길, 귀신고래와 명포수(한석근, 수필과비평사, 2015), 고래 그림 비(碑)(유익서, 산지니, 2016)』가 있다.

울산을 배경으로 할 때는 단연 반구대 고래 암각화가 문학의 소재로 채택이 되기 마련이다. 반구대 암각화를 누가, 왜, 어떻게 그렸겠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작품이 고래 사냥 때문에 암각화를 그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한 결과를 작품화한 결과, 고래 사냥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석기 고래왕 해숨숨』 등은 귀신고래를 아이들이 사냥한다는 식의 무리수를 두었다.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선사시대에 통나무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다는 설정은 문제가 있다. 가죽배를 타고 일부 해안에 떠밀려 온 표착경 사냥과, 고래토텐 숭배문화, 고래와 인간의 교감 등의 고래문화를 배제한 결과이다.

고래사냥은 어른들도 어려운 힘든 어업인데, 문학 속에서 어린이들이 고래사냥을 한다는 구성을 가진 문학은 고래사냥 개념을 잘못 인지한 결과이다.

『반구대』는 반구대암각화를 고래 사냥의 중심 내용으로 해석하여 고래토텐 숭배나 고래사랑의 역사를 외면하고 고래사냥을 강조하고 있다. 수필 『귀신고래와 명포수』는 귀신고래 사냥과 고래 고기에 대한 향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소재목에도 ‘명포수 이야기, 고래식량, 고래의 열두 가지 맛’ 등 거리낌 없이 고래 식문화를 드러내 보이면서 포경이 금지되어 고래 뼈를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긴 하지만,¹⁹⁾ 이제는 시대적으로 고래

18) 김성규, 처용무는 고래춤. <http://cafe.daum.net/zoomsi> 참고

19) 한석근, 귀신고래와 명포수, 수필과비평사,

사냥이 아니라 고래 관광으로 돌아서야 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인 고래관광 도시로서 울산이 명성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²⁰⁾

『고래 그림 비』는 고래 사냥도 고래 사랑의 입장도 취하지 않고,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했을 뿐이다. 반구대 암각화를 소재로 하면서 고래 사랑에 무게 중심을 둔 작품으로 『반구대 고래길』이 있다. 『반구대』가 반구대 암각화를 중심 소재로 하여 고래 사냥에 기울어져서 시간적으로 선사시대와 현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면, 『반구대 고래길』은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문화를 고래 숭배와 고래 사랑으로 파악하면서 장생포 고래가 베링해로 올라가는 공간적인 이동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우리 민족 이동로이면서 태평양 연안을 따라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어지는 반구대 고래의 길을 다루고 있다.

『반구대 고래길』은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학설²¹⁾을 바탕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길이 반구대 일대의 풍광과 고래 문화를 바탕으로 북태평양 연안을 따라 신대륙으로 반구대 고래길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구대 고래길』은 저간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배경으로 한 많은 고래사냥 작품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구대암각화의 해석을 고래사냥이 아닌 고래사랑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아메리카 신대륙의 고래토텐 문화의 모태로서 반구대암각화를 그리고 있으며, 고래사랑이라는 국제화의 추세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결론: 고래 사랑으로 울산 고래문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선사시대뿐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고래축제와 한국고래문화학회 학술세미나를 대표하는 울산 고래문화는 세계적인 고래고장임에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러나 장생포고래박물관 주변에 고래 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즐비

한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할 일일 것이다. 고래사냥에서 고래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지 않으면 고래 축제가 수많은 지역 축제의 하나로 전락될지도 모른다. 선사시대의 고래 도읍지 울산으로 세계인들에게 부각되기 위해서는 고래사랑 도시로서의 울산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래 문학은 고래사랑 문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몇 해 전에 고래사랑문학회에서 『고래와 문학』을 출판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반구대 고래 암각화의 해석이 고래사냥 일면도로 해석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문학에서는 『반구대 고래길』과 함께 고래사랑 문학으로 국제적 무대로 나아가는 새 지평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모색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울산 반구대 고래문화를 귀신고래의 낙원인 태평양 동안의 바하칼리포르니아까지 태평양 고래길로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울산 고래 문학이 전통 고래문화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 천연기념물 울산만이 귀신고래 보호 문학의 산실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고래문학이 세계의 고래 문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울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홍보하며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학술적, 문화적, 예술적 세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향후 연구 주제로 주목될 수 있다.

1. 반구대 암각화 고래문화는 태평양 고래문화로 확대
2. 고래사랑 문학 진작을 통하여 고래문화 인프라 재구축
3. 고래문학 소재를 반구대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적 고래유적지로 확산
4. 우리나라 전통고래문화를 조명하는 문학의 활성화를 꾀하여 세계적인 한국 고래문학이 나올 수 있는 토대 구축
5. 반구대 암각화 스토리텔링과 예술성에서 세계성의 확보

【 참고문헌 】

2015, p.106.
 20) 한석근, 앞의 책, p.187.
 21) 김성규, 반구대암각화에서 카약암각화의 존재확인파 코리안 가락의 신대륙으로의 이동로 연구, 한국고래문화학회논문지, No.2, 2014.

게리 슈미트, “고래의 눈”, 책과콩나무, 201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심청전”, 199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퇴별가”, 1993
 김성규, ‘북태평양 해안선 고래길과 고래뼈 탈
 문화’,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지, 2013
 김성규, ‘반구대암각화에서 카약암각화의 존재
 확인과 코리안 가락의 신대륙으로의 이동
 로 연구’,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지, 2014.
 김옥주, “반구대 고래길”, 북코리아, 2015
 니나 라우프리히, “마테이라 섬의 고래”, 온누
 리, 2007
 마크 윌슨, “하얀 고래 미갈루”, 도토리숲,
 2016
 박남희, “고래포 아이들”, 아이엔북, 2015
 정약용,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사암, 2013
 존 아이언명거, “고래도 함께”, 현대문학, 2016
 진 크레이그헤드 조지, “전설의 고래 시쿠”,
 별숲, 2015
 켄 블랜차드 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
 다”, 21세기 북스, 2002
 찰스 시버트, “고래의 비밀”, 봄나무, 2011
 천명관, “고래”, 문학동네, 2014
 최부, 표해록, 한길사, 2004
 한석근, “귀신고래와 명포수”, 수필과비평사,
 2015
 허만 펠빌, “모비딕”, 작가정신, 2011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cafe.daum.net/zoomsi 코리안신대륙발견
 모임 웹사이트
 www.kyobobook.co.kr 인터넷 교보문고

【 저자 소개 】

Ohk Ju Kim

1981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8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

소설가, 국어교사

저서: 따뜻한 학교, 공학3동, 아오자이에 핀
 무궁화, 반구대 고래길 등

수상: 호미곶에 가다(포항소재전국문학공모전
 대상), 아오자이에 핀 무궁화(2015 세종도서문학
 도서 선정)